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새우, 바이러스, 수입, 완화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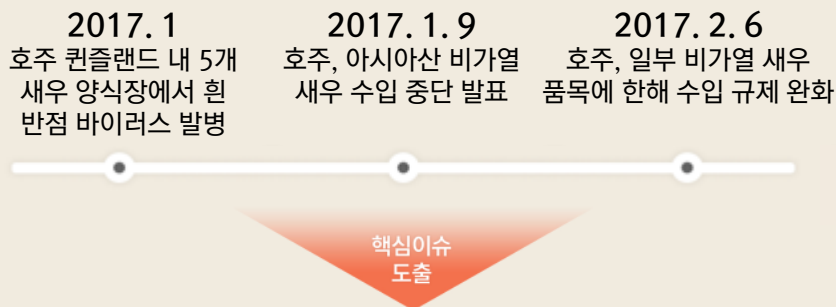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호주, 새우, 바이러스, 수입, 완화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호주, 일부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 규제 완화”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호주, 일부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 규제 완화

2017년 2월 6일,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 9일 퀸즐랜드 5개 양식장에서 치사율이 높은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그 배경으로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또한 이미 수입된 제품은 전수검사를 통해 폐기 또는 재수출 되었다.

하지만 2017년 2월 6일 호주생물보안청에서 일부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제품의 바이러스 전파율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려 일부 품목에 한해 규제가 완화되었다. 현재 말린 새우와 새우로 만든 상온 저장 식품, 방사선 처리를 한 미끼, 애완 물고기 사료와 양식 사료, 호주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잡힌 새우에 한해 규제가 완화되었다. 단 호주에서 잡혔으나 가공 처리를 위해 제 3국으로 수출된 새우품목은 규제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월 9일 기준 골드코스트 지역의 6개 양식장에서 추가로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여전히 발병원인을 찾지 못하였기에 상기 언급된 품목 외 전 제품 규제완화 시기가 불투명하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검역 시 건강한 새우를 사용하지만, 실제 수입되는 제품은 질병에 걸린 새우로 바뀌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소홀을 비판하고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비가열 새우의 검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은 흰 반점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강화될 검역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흰 반점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이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일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일부 비가열 새우 제품의 규제 완화로 말린 새우, 새우로 만든 상온저장식품, 미끼 및 사료의 수입이 다시 허용되어 일부 품목에 한해 호주 수출이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발병 원인의 규명 부재와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수입 규제의 완전 철폐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규제완화 동향과 검역 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수출 계획을 수정/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검역의 사각지대를 이용, 바이러스 유포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방지 및 확실한 검역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